

직장으로 번진 가족모임 연쇄 감염...광주 이틀새 12명 확진

증상 나오기도 1주일간 출근...일상생활 동료 3명 추가 확진 전국 이틀 연속 500명대 재확산 조짐... '4차 유행' 초기단계

광주에서 코로나19 서울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가족 모임 관련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에서도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택시기사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서울 송파구 확진자 관련 3명이 추가돼 총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중 가족 관계는 6명이며 나머지 6명은 이 가족의 지인이다. 특히 이들이 증상이 나타나고도 최대 1주일간 회사에 다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역감염이 확산했다. 이들이 다니는 회사 3곳에서 동료 1명씩 현재까지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총 445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29명이 자가 격리됐다. 방역 당국은 이들이 다니는 회사 직원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식사 시간 조정, 방역 관리 강화 등을 권고했다.

전남에서는 지난 12일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13일 오후 6시 현재 이날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순천에 집중됐던 신규 확진자가 지난 12일 목포(1명), 곡성(2명), 나주(2명), 순천(1명) 등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2일 나온 확진자는 나주의 경우 광주 확진자와 여행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고, 목포 확진자는 서울 성북구 확진자 접촉이 확인됐다. 곡성 확진자는 최근 발생한 순천 택시기사 관련 n차 감염자로 조사됐다. 순천에서 나온 확진자는 유치원생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2명 늘어 누적 11만68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587명)보다는 45명 줄면서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보통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주 초반까지 이어지다가 중반부터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주간 패턴을 고려하면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28명, 해외유입이 14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1일부터 사흘 연속(594명→560명→528명) 500명대를 이어갔다. 현재 유행 상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이 미처 가라앉기도 전에 전국 곳곳에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4차 유행'의 초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지난 이틀 7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668명→700명→671명→677명→614명→587명→542명이다. 이 기간 500명대가 2번, 600명대가 4번, 700명대가 1번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75세 이상 접종 화이자 백신 도착 13일 오전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입소자들에게 투여할 4680명분의 화이자 백신이 광주 북구 전남대 체육관에 설치된 북구예방접종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섬지역 어르신들 코로나 백신 접종 "병원선 띄운다"

도서지역 접종대책 확정...화이자서 AZ로 변경 해군함정서도 접종

섬지역 고령자 백신 접종 불편을 개선한 정부의 접종대책이 확정됐다.

기존 독감 백신처럼 도서지역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에 대해 병원선과 해군 함정에서도 섬지역 고령자 접종이 가능해졌다. 75세 이상 고령자 접종 백신의 경우 당초 화이자 백신 공급이 예정됐으나, 운송과 보관이 쉬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으로 변경됐다.

전남도는 13일 "65세 이상 섬 지역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5월부터 인근 보건진료소나 보건진료소 또는 병원선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 고령자 접종 편의를 위해 전남도가 지난 2월부터 중대본 회의에 지속 건의해 정부가 이를 최근 확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를 비롯한 인천, 경기, 경남, 전북, 충남, 제주 등 섬이 있는 7개 지역은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병원선 등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전남 섬 지역 65세 이상 접종대상자는 총 1만 7100명으로 65~74세 7900명, 75세 이상 9200명이다. 전남지역에는 총 2165개의 섬이 있고 이 가운데 주민이 사는 섬은 272개다. 섬 지역 보건진료소·진료소는 76개소가 있다. 이들은 섬 지역 내 위탁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 우선 접종하게 된다. 무의도서의 경우 인근 보건진료소·보건진료소나 병원선 또는 해군함정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후 이상 반응 등 응급상황을 대비해 해경과 해군 헬기도 지원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섬 지역도 인근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또는 병원선에서 접종하게 돼 편리해졌다"며 "도민들께선 정부의 접종 권고에 따라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방안 등이 포함된 2분기 코로나 19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섬지역의 특수성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해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육지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로 '1박2일' 여정을 떠나야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까지 백신 접종자는 1분기 대상자 6만1305명 중 4만9388명(80.6%), 2분기 대상자 21만 9563명 중 1만3844명(6.3%) 등 총 6만3232명으로 접종률 22.5%를 기록했다. 전남도민 185만명 대비 3.42%의 접종률을 보였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신청하세요

숙박·체험비 지원...화순·무안 등 14개 시·군 참여

전남도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전남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여행과 일을 함께 하는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위케이션 체험여행 프로젝트를 5월부터 추진한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최근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산하고, 일상 업무가 디지털화함에 따라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함께 하는 위케이션 제도를 반영한 사업이다. 올해는 여수, 순천,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진도 등 14개 시·군에서 참여했다.

참가 희망자는 숙박하고 싶은 시·군을 선택해 신청하고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 동안 전남 22개 시·군 전체를 여행할 수 있다. 단 신청한 시·군 내에서 50% 이상 여행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23일이다. 전남을 여행한 후

SNS에 여행 후기 게시 등 과제를 수행하면 숙박비, 체험비 등 하루 최대 15만원을 지원받는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광주·전남지역 외 거주자다. 문화예술가, 웹툰 및 여행 작가, 파워블로거 등 전남의 관광콘텐츠를 적극 홍보할 전문가를 우선 선정한다. 시·군별 구체적 지원기준과 신청 방법은 전남관광 누리집인 남도여행길잡이(www.namdokorea.com)와 해당 14개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일과 여행을 함께 하며 전남의 관광자원과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라며 "전남의 관광자원을 작품에 적용하고 활동할 예술가, 웹툰·여행작가, 파워블로거 등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막걸리 빚기 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예고

국민신문고 국민 제안 첫 사례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들이 즐기는 막걸리와 관련된 '막걸리 빚기 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막걸리 빚기 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여기에는 막걸리를 빚는 작업과 생업을 비롯해 의례, 전통 생활관습을 포괄한다.

일반적인 쌀 막걸리는 쌀을 깨끗이 씻어 고두밥(고들고들하게 지은 된밥)을 지어 누룩과 물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다. 막걸리의 '막'은 '마구'와 '빨리', '걸리'는 '거르다'라는 뜻으로 '거

칠고 빨리 걸러진 술'을 뜻한다. 명칭이 순우리말일 뿐만 아니라 이름에서 술을 만드는 방식과 그 특징이 드러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막걸리는 멥쌀, 찹쌀, 보리쌀 등 곡류로 빚기 때문에 삼국 시대 이전 농경이 이뤄진 때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막걸리 빚기 문화가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향유되고 있다는 점, 삼국 시대부터 각종 고문헌에서 제조 방법과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이 인정을 받았다. 아울러 농요와 속담, 문학작품 등을 통해 막걸리 문화와 연관해 한국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고 현재도 전승 공동체를 통해

막걸리를 빚는 전통이 전승·유지된다는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

다만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기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막걸리는 예로부터 마을 공동체의 생업이나 경조사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였다. 오늘 날에도 막걸리는 신주(神酒)로서 건축물의 준공식, 자동차 고사, 개업식 등 여러 행사에 제물로 올릴 정도로 관련 문화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막걸리 빚기 문화는 2019년 '술은 무형유산 찾기',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해 국민이 직접 국가무형문화재를 제안해 지정 예고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도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도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아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우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동광주빌딩 내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대지급매

위치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면적 2,816㎡(851평)
금액 71억 (5월1일 이후 85억)

4월 30일까지만 추진합니다

문의 010-6432-5070